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43
SEP 4 2020

발간년월 2020년 9월 4일 (통권 제143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중 산둥성 쑤보시~러시아 울리야놉스크 철도 운영
- 블라디보스톡 항, 화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러 노바텍, 에너지 개발 관련 투자 규모 축소한다.
- 인도-러시아, 해양·북극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미·러, 북극지역 갈등 봉합 고위급 외교회담 진행
- 우즈베크·아프간·이란, 교통망 개발 장관 회의 개최

주요 통계

- 2020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공지 사항

- 제 5회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연장 공고



주요 동향



중 산둥성 쑤보시~러시아 울리야놉스크 철도 운영

■ 중국 산둥성 쑤보시와 러시아 울리야놉스크를 잇는 철도노선이 개발됨^{a)}

- 이 노선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행으로 오가는 프리볼시스키(Privoljskui) 연방관구 내 첫 철도 노선임
- 중국 산둥성에서 울리야놉스크-3역(Ulianovsk-3)까지의 운행시간은 14일이 소요됨
- 러시아 트랜스컨테이너 관계자^{b)}는 컨테이너 53TEU를 운송했으며, 화물 종류는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석유 및 가스 관련 장비, 스포츠 용품 등 13개라고 밝혔음
- 전체 물동량 중 20%는 울리야놉스크가 최종 목적지이며, 나머지는 니즈니 노브고로드(Hijniy Novgorod), 바시코르토스탄(Bashkortostan), 셰복사리(Sheboksary), 사마라(Samara)주, 북 카프카즈(Severby Kavkaz)로 운송되는 화물이었음

■ 이 철도 노선은 러시아 철도청, 트랜스컨테이너, 쿠이비셰프스키 교통서비스 센터 및 터미널·창고단지운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2019년 11월 러시아 항만 구역 전문가들은 쑤보시 경제특구, 중국 철도청, 관세청 소속 중국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공동사업을 추진함
- 이 공동사업의 핵심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간 쌍방향 국제물류 흐름이 만드는 것임

■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중국 화물을 기반으로 울리야놉스크는 유럽과 중국을 잇는 물류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의 항만경제특구의 특별관세제도와 중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 상품에 적용될 특별운송세율은 울리야놉스크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울리야놉스크 항만경제특구내 현재 32개 사(社)가 입주해 있으며, 6개 사(社)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임
- 트랜스컨테이너의 쿠이비셰프스키 터미널·창고단지 운영부는 열차를 울리야놉스크-3역까지

옮긴 후, 대형 컨테이너를 적하하고, 통관장에 배치한 다음, 상품을 분류한 후 최종 소비자까지 트럭으로 운송하는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

- 러시아 철도청은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통관장을 확대했으며, 운송비 할인제도를 적용함

■ 2019년 4월 울리아놉스크 항만경제특구와 쯔보시 경제특구는 정부 간 사업인 ‘일대일로’의 하나로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음

- MOU 내용에 따라 양 도시 간 운송될 물동량을 컨테이너 50TEU로 결정하였으며, 이 노선을 따라 매달 4대의 컨테이너 열차가 운영될 계획임
- 다만, 올해 1분기 해당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8월 말에 처음으로 운행에 들어갔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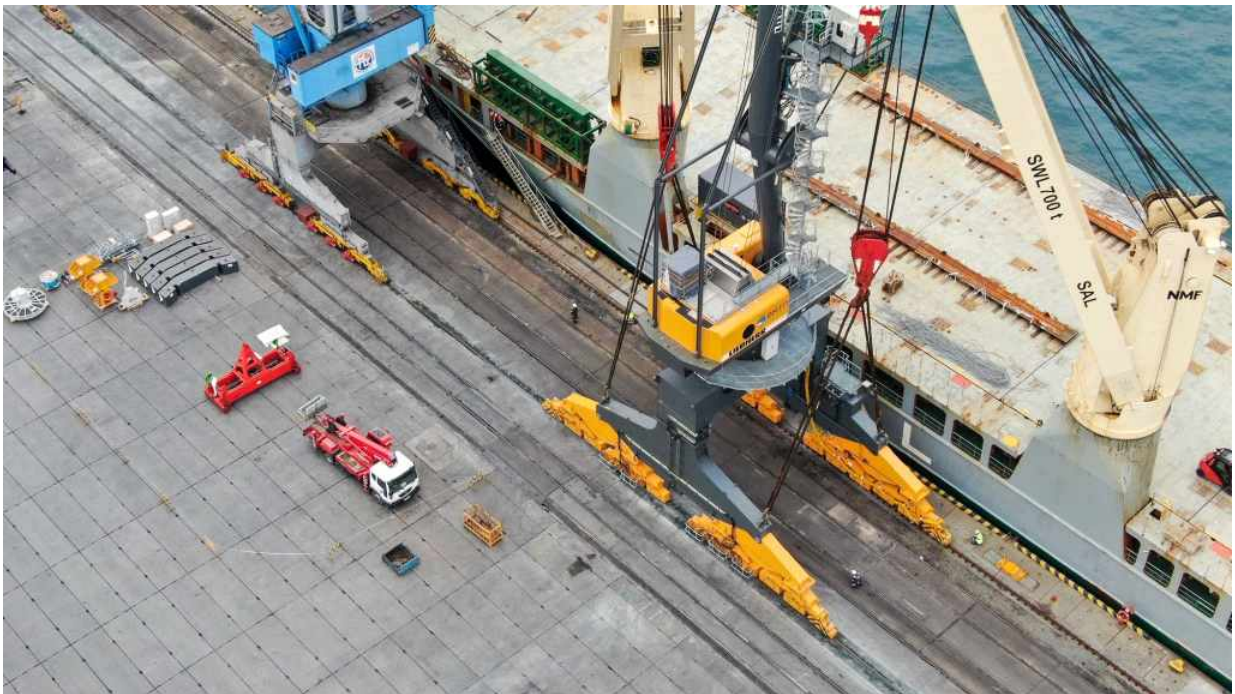
- a) <https://tass.ru/politika/9314305>(2020.8.31. 검색)
- b) 알렉세이 볼르토프(Aleksei Bulytov) 트랜스컨테이너 쿠이비셰프(Kuibyshevskiy) 철도 지점장

블라디보스톡 항만, 화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에 새로운 크레인^{a)}을 설치함^{b)}

- 다양한 화물 처리를 위해 크레인은 다목적 터미널의 부두 9호에 설치될 계획임
- 크레인 적재중량은 124톤이고, 최대 작업 반경은 48m이며, 블라디보스톡 무역항 내 가장 큰 크레인임
- 그 외에도 다목적 터미널에는 현재 24대의 크레인이 작동 중이며, 각 크레인의 최대적재량은 16~100톤임
-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에 4대의 크레인^{c)}이 다목적 터미널 6호 및 13호에 추가 설치될 계획임
- 각 크레인의 적재중량은 63톤, 최대 작업반경은 40m임

그림. 블라디보스톡 무역항 내 새로운 크레인



자료: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portalnyy_kran_stanet_samym_moschnym_v_parke_vntp.html

■ 2017년부터 블라디보스톡 무역항은 산업시설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항만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크레인 설치 사업은 화물처리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항만시설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지난 3년간 항만 전체 면적의 35%인 13만 388m² 부지에서 건설, 재건축, 현대화 작업이 진행됨
- 갠트리 트레인, 트랙터, 트럭, 컨테이너 스택어 등 총 76대의 장비가 새로 설치되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a) IEBHERR LPS (Liebherr Portal Slewing) 420
- b)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yy_portalnyy_kran_stanet_samym_moschnym_v_park_vmtp.html(2020.8.31. 검색)
- c) Vityaz 크레인

러 노바텍, 에너지 개발 관련 투자규모 축소한다.

■ 러시아 노바텍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올해 투자 규모를 1,700억 루블로 축소할 계획^{a)}

-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15%(800억 루블)을 삭감한 것으로, 올해 초 노바텍은 투자 규모를 20%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노바텍은 그 동안 글로벌 LNG 시장 점유율을 증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음

■ 노바텍은 최근 투자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LNG개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북극LNG-2 사업을 위한 자금 유치 기간을 2020년까지에서 2021년까지로 1년 연기했음
- 야말LNG 사업의 경우 올해 4분기에 4기(90만 톤)가 가동될 계획임
- 그밖에도 연간 480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오비LNG 사업을 추진 중임

그림. 야말LNG(좌) 및 북극LNG-2(우)



자료: <http://www.novatek.ru/ru/business/yamal-lng/>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novatek_sokratit_investprogrammu_na_tret.html(2020.8.31. 검색)

미·러, 북극지역 갈등 봉합 고위급 외교회담 진행

■ 북극지역에서 미-러 간의 다자적 협력 활성화 논의^{a)b)}

- 8월 28일 블라디미르 티토프(Titov) 러시아 외무차관과 존 설리번(John Sullivan) 주러 미국 대사는 북극에서 양자 협력과 여러 지역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음
- 양측은 북극 지역에서 건설적인 의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북극 이사회의 중요성에 관해서 주목했으며, 러시아 측은 북극지역을 비 정치화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했으며, 긴밀하고 다자적인 협력을 위한 약속을 확인했음
- 미국 북극권 조정관 제임스 드하트(Jim Deheart)는 “미국은 러시아와 좋은 협력관계에 있으며, 북극지역 연구와 조사 및 구조 작업, 재해 대응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음
- 또한 “어느 측에서도 추구하지 않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 북극지역에서 미-러 간의 협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함^{b)c)}

- 미국은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역과 알래스카 북부 해안에서 해안 경비함들과 핵 추진 잠수함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음. 또한, 북대서양과 북극해 일부에 제2 작전함대를 복원하고 있음
- 2020년 5월 초 미국과 영국 선박을 포함한 NATO의 사격대가 바렌츠해에 진입했으며 세르게이 루드스코이(Sergey Rudskoy) 총참모부 작전본부장에 따르면 “훈련 중 러시아 영토의 물체를 타격하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라고 밝혔음
- 러시아 또한 세계 최대의 원자력 쇄빙선 아르티카(Arktika)를 북극해에서 시범 운항했고 2030년까지 북극항로 연중 항해가 가능한 핵 쇄빙선 소구축함 건조계획에 있으며, 2020년 8월 미국과 인접한 베링해에서 핵잠수함을 동원한 ‘대양 방패 2020(Ocean Shield 2020)’ 대규모 전술훈련을 실시했음
- 모스크바 국립대학 세계정치학부 학장 안드레이 시드로프(Andrey Sidorov)에 따르면 “미국은 북극지역에서 자원 확보 기술뿐만 아니라 쇄빙선도 충분하지 않다.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곧 두 대양 사이의 대동맥이 될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협력이라는 틀 뒤에서 러시아의 북극개발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북극지역에서 미-러 간의 협력이 일시적인 협력처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음

그림. 러시아 해군의 대양 방패 2020 훈련(Ocean Shield 2020)



자료: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0/08/russian-naval-forces-start-ocean-shield-2020-drills-in-baltic-sea/>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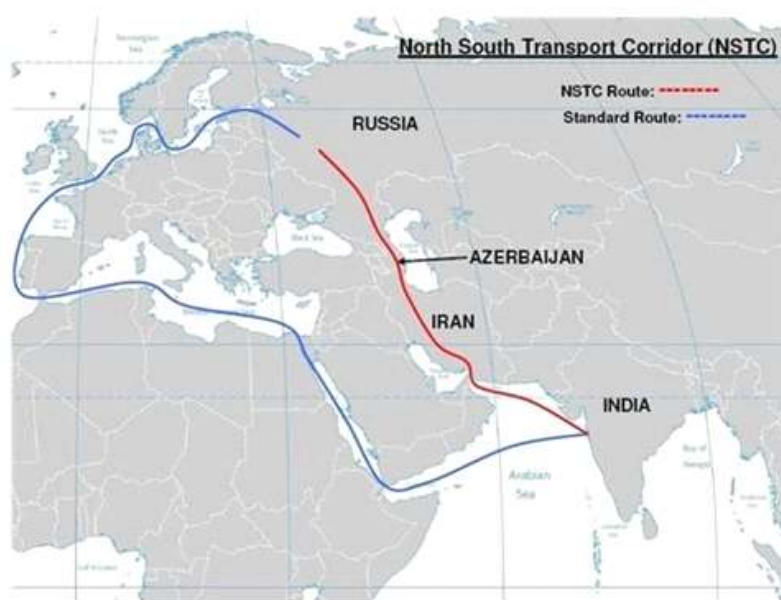
- a) <https://tass.ru/politika/9314305>(2020.8.31. 검색)
- b) <https://russian.rt.com/world/article/769727-ssha-rossiya-arktika>(2020.8.31. 검색)
- c)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0/08/russian-naval-forces-start-ocean-shield-2020-drills-in-baltic-sea/>(2020.9.01. 검색)

인도-러시아, 해양·북극권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철도, 해운 등 복합 물류 협력 논의 a)b)c)

- 20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연례 정상회담으로 인도-러시아의 해양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보임. 인도양과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을 경유하여 뭄바이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국제남북교통로(INSTC)와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 항로(VCMC)개설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의 논의 아젠다로 채택
- 인도와 러시아는 국제남북교통로(INSTC: 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와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VCMC: Vladivostok-Chennai Maritime Carridor) 해운 연결망 구축 사업들을 통해 해양연계 사업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시설을 포함한 민간 조선사업 육성에 양국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제남북교통로(INSTC)는 러시아, 이란, 인도가 주축이 되어 수로와 철도 등을 이용해 연결하는 복합 운송로(대략 7,200km) 구축 계획으로 2000년에 3국은 INSTC 구상과 관련하여 3자 협정 체결하고, 2002년에 비준 절차 완료한 뒤 2018년 말 논의를 재개하였음

그림. 국제남북교통로(INSTC)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1164500080?input=1195m>

- 이 구상에 따르면, 인도는 자국 화물을 해운으로 페르시아 만 연안에 위치한 만다르 아바스(이란의 항구도시)로 운송한 다음 육로로 카스피 해 남단에 위치한 만다르 안잘리(이란 북부항구 도시)로 이동 후, 카스피 해 수로를 통해 아스트라한(러시아 남부 항구도시)까지 운송

-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해마다 2000~3000만 톤 규모의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수에즈 운하와 비교하여 30~40%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그림.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 항로(VCMC)



자료: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95>

-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 항로(VCMC)는 2019년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투자협력을 밝히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양국은 항로 개설을 위한 협의가 진행
- 향후 구축될 VCMC항로를 통해 운송기간 단축, 주요 아태지역 경유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의 효과가 기대됨. 인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기존 항로의 운송기간은 약 40일이며, 신규 항로는 대략 24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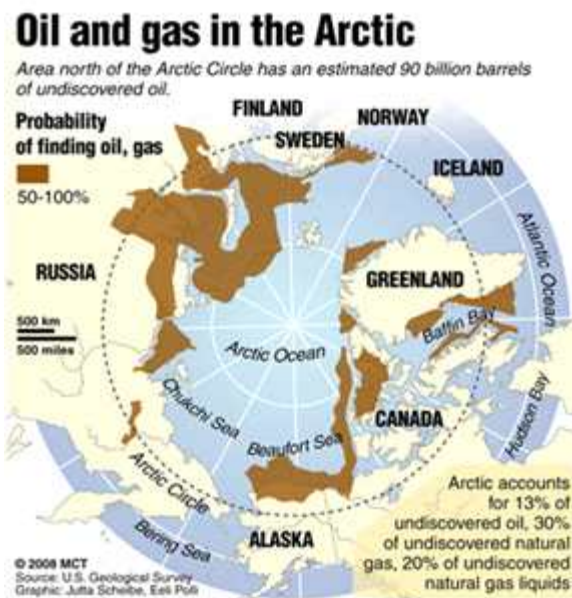
■ 조선 분야와 해양협력 사업 논의^{a)}

- 인도 정부는 러시아의 참여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방안을 추구하는 한편, 러시아 정부는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 러시아와 인도는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해 8월 20일 웨비나를 개최하였으며 선박관련 설계 및 건조, 물류,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내륙 수로 등 다양한 해양협력 방안을 논의. 특히 인도-러시아의 해운 분야 MRO 파트너십은 상호이익이 발생하는 협력 방안으로, 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연간 선박 3만 척 이상 인도 항만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측

■ 북극자원에 인도 정부 관심 고조 a)d)e)

- 극동 러시아에는 토지, 목재, 광물자원,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금, 다이아몬드, 석유 및 천연가스 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존재. 러시아 정부는 북극권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농업경제 특구(SEZ) 지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 목재산업 확대, 광물자원 개발 등 다양한 계획들을 발표
- 인도는 자원이 풍부한 북극 지역과 국제남북교통로(INSTC) 사이의 연결 통로를 탐사할 계획. 인도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기반으로 북극지역 인프라 개발, 해운 경로 구축, 및 자원 개발에 관심이 많은 편. 최근 인도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북극항로를 통한 협력뿐만 아니라 북극권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해 왔음
- 2009년 조사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30%, 석유 13%가 매장되어 있음. 러시아는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 총 생산량의 10%와 LNG 25%를 생산. 러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북극지역 석유 비중은 80%정도이며, LNG는 거의 100%로 북극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그림. 북극권 에너지 자원(석유 & LNG)



자료: <https://www.jatinverma.org/understanding-between-india-and-sweden-on-cooperation-in-polar>

- 인도는 러시아와 안보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음. 실질적으로 인도 정부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자국 군사물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감소하였지만 모디 인도 총리가 주장하던 ‘메이드 인 인디아’ 프로그램이 방위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공하지 못해 한동안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함
-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며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 미국산 LNG 수입이라는 인도의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유 설비 및 관련 인프라 부족, LNG 수출에 관한 규제 미비 등 인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인도는 자국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급책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었음

- 러시아 정부 또한 서구권 강대국들의 각종 제재 속에서 북극권 개발비용을 분담할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 러시아는 인도와의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북극권 에너지 자원개발 투자를 권유. 이미 Arctic LNG2 프로젝트에 중국, 일본,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고 있으나, 인도 최대 가스회사인 가일(GAIL) 또한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 2012년 가일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Gazprom)과 매년 250만 톤의 LNG를 20년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인도 국영기업들이 러시아 북극지역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북극권 에너지 자원 개발 산업에 인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2019년 9월, 인도 석유 회사들은 (Indian Oil, OGNC Videsh, Bharat Petro Resources)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북극지역의 보스토크(Vostok)와 동부 클러스터 석유 프로젝트에서 로스네프트(Rosneft)와 투자지분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 인도는 향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VCMC 항로를 통해 수입할 계획
-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는 비 북극권 국가 중 처음으로 북극권에서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경호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klee88@kmi.re.kr/051-797-4942)

참고자료

- a)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russia-plan-to-build-maritime-partnership-including-ship-building-industry/articleshow/77676733.cms>(2020.9.2. 검색)
- b)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1164500080?input=1195m>(2020.9.2. 검색)
- c)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95>(2020.9.2. 검색)
- d)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indias-arctic-energy-partnership-russia> (2020.9.2. 검색)
- e) <https://www.financialexpress.com/industry/cold-rush-why-india-is-rushing-to-the-arctic/1721292/>(2020.9.2. 검색)
- f) <https://arctic.ru/international/20200115/899055.html>(2020.9.2. 검색)

우즈베크·아프간·이란, 교통망 개발 장관회의 개최

■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장관 간 교통망 개발과 공동관심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화상 회의가 개최되었음

- 회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횡단 철도 건설과 남북 국제 교통 회랑의 일부인 이란 항구 초호보호르(Chokhbokhor) 항만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이 논의됨
- 또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TIR 환승시스템(Transport International Route)의 전면적 도입을 비롯한 환승 관련 문제가 논의됨

그림. 남북 국제 교통 철도



자료: <https://www.trend.az/casia/uzbekistan/3274763.html>

■ 각국 장관은 기존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간 상품 운송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엘러 가니예프(ellior ganiyev)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이런 맥락에서 그는 국가 간 운송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란-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 노선에 "첫 번째 자동차 카라반"을 만들 것을 제안함

- 모하마드 이슬라미(Mohammed Islami) 이란 교통부 장관은 복합 수송 회랑 조성이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이란은 2021년까지 초호보호르 항구에서 자헤단(Zahedan)시까지 철도 건설 및 시운전을 완료할 것이며, 이는 양국 간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야모 샴스(Yamo Shams) 아프가니스탄 교통부 장관은 국가 간 교통망을 개발하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
- 이 회담은 3국 간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되었음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안은형, 부산대학교 노어노문학과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www.trend.az/casia/uzbekistan/3274763.html>(2020.9.1. 검색)



주요 통계



표. 2020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2.43 (+2.4)	5.91 (+3.9)	18.34	(+3.0%)
북극해	1.21 (-12.2%)	4.74(-8.1%)	5.95	-9.3%
발트해	9.27(-2.4%)	7.75(-1.1%)	17.02	-1.7%
아조프-흑해	6.92(+14.6%)	10.22 (-3.5%)	17.0	+2.9%
카스피해	0.25 (+34.8%)	0.44 (+7.6%)	0.69	+17.9%
합계	29.96(+2.8%)	29.05(-2.1%)	59.01	+0.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297118/\(2020.8.30. 검색\)](https://portnews.ru/news/297118/(2020.8.30. 검색))

b) [https://portnews.ru/news/298567/\(2020.8.30. 검색\)](https://portnews.ru/news/298567/(2020.8.30. 검색))

표.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19,609.9	67,330.9	219,091.0	66,552.3	518.9	778.6
광물 제품	1,293,321.8	47,036.6	1,270,259.9	21,769.2	23,061.9	25,267.4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086,837.8	20,147.3	1,086,775.5	20,147.3	62.3	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5,846.9	63,534.3	5,326.5	63,217.7	520.4	316.6
가죽원료, 모피 제품	2.5	1,320.1	0.3	1,281.5	2.2	38.6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8,196.5	6,827.9	97,613.3	6,679.3	583.3	148.6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402.4	31,383.8	396.3	31,115.6	6.1	268.1
금속 및 금속 제품	24,749.1	52,658.2	24,671.4	51,694.9	77.7	963.3
기계류	10,362.2	458,418.9	9,900.6	458,156.1	461.5	262.8
기타	115,106.7	32,042.5	86,380.2	30,816.8	28,726.6	1,225.7
합계	1,767,598.1	760,553.2	1,713,639.5	731,283.5	53,958.5	29,269.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0.8.30. 검색\)](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0.8.30. 검색))

표. 2020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선어.,냉장어	1.7	6.1	-	-	2	6.1	-	-	-	-	-	-
냉동어	72,788.1	87,545.6	1,038	2,129.9	72,788	87,545.6	1,038	2,129.9	0	0.0	-	-
연어류	1,361.6	4,183.3	-	-	1,362	4,183.3	-	-	0	0.0	-	-
넙치	628.5	2,853.7	-	-	629	2,853.7	-	-	-	-	-	-
가자미	789.4	504.5	-	-	789	504.5	-	-	-	-	-	-
가자미류	2,542.6	2,105.5	-	-	2,543	2,105.5	-	-	-	-	-	-
청어	17,792.2	12,885.9	-	-	17,792	12,885.9	-	-	0	0.0	-	-
대구	6,902.8	18,172.4	-	-	6,903	18,172.4	-	-	-	-	-	-
명태	27,510.8	28,081.2	-	-	27,511	28,081.2	-	-	0	0.0	-	-
농어	13.9	67.0	-	-	14	67.0	-	-	-	-	-	-
간, 곤이 (어란)	1,813.3	7,916.2	-	-	1,813	78,890.9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1,118.4	1,896.1	-	-	1,118	1,896.1	-	-	-	-	-	-
생선 필렛, 어육	1,922.0	5,535.9	82	270.1	1,880	5,425.7	82	270.1	42	110.2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2.8	-79.2	98	569.0	-3	-79.2	98	569.0	0	0.0	-	-

갑각류	6,663.1	98,534.5	27	194.6	6,663	98,528.6	27	194.6	-	5.9	-	-
계류	5,860.2	93,019.8	-	-	5,860	93,013.9	-	-	-	5.9	-	-
조개류	1,832.9	5,161.2	-	-	1,813	5,137.9	-	-	20	23.3	-	-
가리비	318.5	409.7	-	-	319	409.7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1,296.1	2,814.3	36	184.9	1,276	2,791.0	36	184.9	20	23.3	-	-
수산 무척추 동물	754.5	2,733.4	-	-	755	2,732.2	-	-	0	1.1	-	-
해삼류	185.3	548.5	-	-	185	547.4	-	-	0	1.1	-	-
성게류	569.2	2,184.9	-	-	569	2,184.9	-	-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0.8.30. 검색\)](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2020.8.30. 검색))

제 5회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연장 공고

해양수산부는 매년 극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제 1회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북극권 대학(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과 남극권 대학(뉴질랜드)에서의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2020년에는 온라인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저명한 극지 학자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세미나를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20년 9월 10일~12월 11일(약 3개월)

□ 프로그램 내용: 온라인 교육 수강(30강), 교수진 및 전문가 세미나(3회), 국내 극지기관 견학, 북극협력주간(12월, 부산) 참석, 논문 및 성과발표회 등

★ 오프라인 세미나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대상 :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대학원생(학부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휴학생 포함)

□ 특전 및 편의 사항

○ 수료증 수여

○ 우수 수료생 1인은 차년도 ‘북극서클 총회(10월, 아이슬란드)’ 참석 기회 제공

○ 극지 관련 (졸업)논문 작성 시 연구비 일부 지원(사후지원) 등

○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 극지 연구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시 우수 수료생 최우선 인턴십 기회 제공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년 8월 27일~9월 7일(약2주)

□ 제출방법 : 2020년 9월 7일(월) 18:00 까지 이메일 접수(klee88@kmi.re.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극지야기(www.koreapolarportal.or.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또는 해수부(www.mo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회 **재공고**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안내

해양수산부는 매년 극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제 1회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북극권 대학(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과 남극권 대학(뉴질랜드)에서의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2020년에는 온라인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저명한 극지 학자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세미나를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20년 9월 10일 ~ 12월 11일(약 3개월)

* 12월 11일 성과발표 및 수료식 예정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온오프라인 과정 개요

주차	12주차
주간학습 시간	주당 3-4시간
강의료	무료
운영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난이도	중고급
분야	남극, 북극 정책, 거버넌스, 산업, 과학, 국제협력 등
언어	한국어 / 영어
코스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아티팩트 프로그램(4주) 2 온라인 강좌 30편 3 오프라인 세미나 3회 4 과제물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7일(2주)
- 모집대상** ▶▶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대학원생
* 학부 졸업예정자, 졸업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모집인원** ▶▶ 30명 내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① 참가 신청서 1부(붙임 양식1)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 양식 2)
 - ③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 / 휴학 증명서 1부
 - ④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3)
 - ⑤ 영어 성적증명서
* 별도 없을 경우, 아학연수 또는 유학 증명서 등 관련 문서 제출
 - ⑥ 기타 증빙 서류 각 1부(해당사항 있을시 제출)

해양수산부 2020년도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참조

특전 및 편의 사항

- 수료증 수여
- 우수 수료생 1인은 차년도 '북극서클 총회(10월, 아이슬란드)' 참석 기회 제공
- 극지 관련 (졸업)논문 작성 시 연구비 일부 지원(사후지원) 등
-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 * 극지 연구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시 우수 수료생 최우선 인턴십 기회 제공

선발방법: 서류면접 (미제출된 서류가 있을 경우 무효처리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

담당자 KMI 북방극지연구실 이경호 연구원

T 051) 797-4942

E-mail klee88@kmi.re.kr